

뉴욕/뉴저지 특별집회

메시지 3, 4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은 어떻게 조성되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며,
그들의 사역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1)

성경: 고린도후서 2:10, 12-3:3

I.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렬 안에 있는 포로들이다— 고후

2:12-14.

- A. 바울은 그 사역 안에서의 자신의 어떠함을 묘사하기 위해 로마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렬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였다—고후 2:14.
- B.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께 정복되어 그분의 개선 행렬 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는 포로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 승리하신 장군 주 예수님이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가는 개선 행렬이었다—엡 4:8, 골 1:18하.
- C. 우리는 그러한 포로들로서,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었으나 지금은 패배당하고 정복되고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한다.
 1.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들이라고 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포로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비교 행 26:14.
 2. 그리스도의 포로는 매일 그리스도께 정복되고 패배당하고 사로잡힌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여, 저를 당신의 포로로 만드소서. 결코 제가 이기도록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지도록 하소서.”
 3. 그리스도의 포로는 영 안에서 살며 섬긴다—고후 2:13, 롬 1:9.
 - a. 그리스도의 포로는 영 안의 안식을 주의하고,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주의하지 않는다—고후 2:12-13, 비교 7:5-6.
 - b. 그리스도의 포로는 믿음의 영을 사용한다—고후 4:13.
 - c. 그리스도의 포로는 속사람 안에서 날로 새로워진다—고후 4:16.
 - d. 그리스도의 포로는 거룩한 영 안에서 섬긴다—고후 6:4, 6, 7:1.
 - e. 그리스도의 포로는 영이 상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의 영을 상쾌하게 한다—고전 16:18, 고후 7:13.
 - f. 그리스도의 포로는 동일한 영 안에서 행한다—고후 12:18.
 4. 그리스도의 포로는 영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한다—고후 2:10, 비교 4:6.
 - a. 그리스도의 포로는 그리스도의 변치 않으심을 누린다—1:17-20.
 - b. 그리스도의 포로는 그리스도의 은유하심과 관대하심을 누린다—10:1.
 - c. 그리스도의 포로는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누린다—11:10.
 - d. 그리스도의 포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린다—12:9-10.
 - e. 그리스도의 포로는 그분 안에서 말하여 그리스도를 누린다—13:3-5.
 5. 그리스도의 포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2:12-13, 11:28-29, 12:14-15.

II.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향 운반자들이다—고후 2:14하-17.

- A.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포로들인 동시에 향 운반자들이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후 2:14.

- B. 사실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빌 1:19-21상.
- C.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로잡고 정복하고 소유하고 얻으셨으므로 그분은 우리를 적시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드실 자유가 있으시다—고후 2:15.
- D. 그리스도의 연인들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모든 주변 상황과 어떤 종류의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아 4:10-16.
 1. 모든 문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온다.
 2. 안에 향기가 있다면 밖의 환경들은 다만 그 향기를 밖으로 나오게 할 뿐이다—빌 4:11-12.
- E. 향기로운 향이신 그리스도를 뿌리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 그것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문제이다—고후 2:16.
- F.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이들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성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후 2:17, 비교 13:3.
- G.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향 운반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고후 5:20.
 1.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살지 않고, 죽지않는 생명, 곧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산다—4절.
 2.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존귀를 얻기로 결심한다—9절.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다—14절.
 4.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안다—16절.

III.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 내용이신 그리스도로 쓰인 편지들이다—고후 3:1-3.

- A.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 각 부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 우리를 그분의 살아 있는 편지로 만드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읽히고 알려지실 수 있다—고후 3:2-3, 비교 엡 3:17상.
- B.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은 살아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붓과 같은 도구가 아니라 글을 쓰는 데 사용되는 떡과 같은 요소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살아 있는 편지를 쓰기 위해 그 요소를 가지고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빌 1:19, 비교 출 30:23-25.
- C. 하늘에 속한 복합적인 떡은 복합된 영이며, 이 영-떡의 본질은 모든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붓이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 떡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그분으로 적셔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산 편지가 되게 한다—빌 1:19, 고후 3:3, 6, 시 45:1.
- D. 한 면으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다른 한 면으로 그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새긴 편지이다—고후 3:2-3.
 1.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안에 동시에 쓰이신다.
 2. 한 번 편지를 쓸 때 두 통의 원본이 만들어진다. 한 통의 원본은 우리의 마음에, 다른 한 통의 원본은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
 3.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이 편지는 또한 쓰는 사람들인 우리 안에도 기록된다. 그러한 사역은 하나가 되는 두 마음을 포함한다.
 4.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한 사람들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준 사람들을 결코 잊지 못한다—7:3.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은 어떻게 조성되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며,
그들의 사역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2)**

성경: 고후 3:16, 18-4:1, 6-7

IV.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는 거울들이다—고후 3:16, 18-4:1.

- A.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지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의 주님을 주목할 수 있다—고후 3:16, 18.
- B. 사실상 우리의 돌아선 마음이 수건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수건을 벗는 것이다.
- C. 수건을 벗은 얼굴은 곧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수건을 벗은 마음이다—고후 3:16, 18, 삼상 16:7, 엡 1:18상.
- D.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으며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인격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는 보배이다—고후 4:6-7, 뵤전 3:4.
 - 1. 우리는 하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영 안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얼굴,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이다—고후 2:10, 4:6-7.
 - 2. 온 우주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창 32:30, 출 25:30, 33:11, 시 27:4, 8, 계 22:4.
 - a.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며 그분의 눈언저리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보배이시라는 것을 느낀다.
 - b.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과 같다—욥 42:5-6.
 - c. 오늘날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은 바로 완결되신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흡수하고 매일 신성한 변화 아래 있을 수 있다—고후 3:18하, 마 14:22-23, 골 4:2.
 - (1) 주님의 영광은 주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 (2) ‘영광에서 영광에’란 ‘주 영에서 주 영에’를 의미한다. 이것은 풍성한 공급이신 주 영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속으로 더해지시는 것을 의미한다.
 - (3) 우리가 주님께 열어 드릴 때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그분의 생명 본질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며, 그분의 생명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형태지으신다.
 - (4)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다만 그분께 말하면 된다. 그분은 바로 당신 속에 계시며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다—빌 4:6.
 - 3. 주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며,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후 3:18-4:1, 빌 1:19-21상.
 - 4.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주님께로 돌이켜, 대면하여 그분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도록 그분을 반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여 그분과 같게 되는” 날이 이르도록 그분의 영광스런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요일 3:2.
- E. 변화는 외적 교체나 교정이 아니라 영적 신진대사이다. 그것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진대사적 기능이다.

1. 신진대사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
 - a. 첫째, 새 요소의 공급.
 - b. 둘째, 옛 요소를 새 요소로 대체함.
 - c. 셋째, 옛 요소를 배출시키거나 제거하여 새로운 어떤 것이 산출되게 함—고후 5:17, 갈 6:15, 골 3:10-11.
2. 우리가 새로운 요소이신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서 영적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밖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생명 안의 신진대사를 나타낸다.
3. 내적 신진대사를 통해 밖으로 표현된 것만이 진정한 건강이며 참된 아름다움이다—출 28:2, 시 90:17.

V.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뛰어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들이다—고후 4:7.

- A. 이러한 그릇들은 오늘날의 사진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섬광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고후 4:6-7.
- B.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인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하잘것없는 그릇들을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만든다—고후 4:7, 비교 창 4:26.
- C.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보배,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신성한 공급과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며, 사람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후 4:7, 12:10.
- D.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담고 표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릇들이다—행 9:15, 비교 단 5:2-3, 23.
 1. 우리는 공홀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들이다—롬 9:16, 23.
 - a.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홀에 따라 택함받았다. 우리가 믿는 이들인 것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공홀에 속한 것이다—롬 9:11-16, 20-21.
 - b.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홀 안에 있는 그분의 선택의 목표는 많은 그릇들을 얻으셔서 그분을 담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유용성의 절정이다—롬 9:21.
 2. 우리는 존귀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들이다—롬 9:21.
 - a. 우리는 비천에 이르는 그릇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여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이다—딤후 2:20-21.
 - b.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 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이다—삿 9:9, 비교 요 7:37-39상.
 3. 우리는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들이다—롬 9:23.
 - a. 우리의 생명에 의해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 자신들을 표현하며 사는 대신,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본성으로 그분을 표현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영광이며, 이러한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요 17:22-24.
 - b.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됨—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비하셨다—롬 8:21, 23, 30, 빌 3:21.